



밝은 미래를 위한 한가운 한소리

수덕사 대웅전 700돌...스님·신도 독경 '장엄' 17~19일 수덕사 창건 1409주년 개산대제 봉행

선종본찰에서 법화경 독경대법회 연 까닭?

수덕사는 백제 법왕 원년(599) 지명(知命) 법사가 창건했으며, 백제 무왕 때 승제(崇濟) 법사와 혜현(惠現) 스님이 복부 수덕사에 거주하면서 법화삼론(法華三論)을 강의했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속고승전>과 <삼국유사>의 "혜현 스님이 입적한 후 석실 안에 모셔둔 스님의 유해를 호랑이가 씹어먹었으나 허만은 남겨두었다"는 기록은 구마라집 법사가 다비식 이후에도 혀가 타지 않고 남은 이적과 유사하다.

인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갖추어져 있는 불성(佛性)을 확신하고 계발할 것을 실천(法化)의 가르침은 '본래성불(本來成佛)'을 강조하는 선사상과 일맥상통한다. 수덕사는 '사람이 부처'임을 강조한 <법화경>사상으로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부처 아들(佛子)'로 살아가길 염원하며 이번 법회를 기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희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온 누리에 두루한 삼보님께 귀의하며 광대한 서원을 세우고 이제 <법화경> 여래수랑품을 독송하옵니다."

산과 들이 웃을 바래 입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가을, 국화 100만송이로 도량을 장엄하고, 1000여 스님과 4000여 신도들이 함께 <법화경> '여래수랑품'을 독경하는 '아담법석'이 백제불교의 성지 수덕사에서 재현됐다.

예산 수덕사(주지 응산)는 국보 제49호 대웅전 건립(고려 충렬왕 34년·1308) 700주년을 기념, 10월 17~19일 경내에서 기념대법회와 사찰 창건 1409주년 개산대제를 봉행했다. 17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8일 독경대법회와 행사기간 내내 박물관 특별전, 전통건축 미니어처 전시회, 만등 점등식, 수덕사와 인연이 깊은 고암 이음로 화백 고택복원 1주년 기념전이 경내 곳곳에서 진행됐다.

특히, 18일 봉행된 대웅전 건립 700주년 기념 독경대법회는 1000여 스님과 4000여 불자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법화경>을 독경하며 국민인과 나라발전을 기원한 장엄한 의식을 연출했다. 독경대법회에 참석한 5000여 독경 대중을 비롯한 1만여 사부대중은 발원문을 외우며 국·내외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모두 화합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것을 염원했다.

<법화경> 송경의식에 앞서 수덕사 주지 응산 스님은 대회를 통해 "<법화경>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똑같이 불성을 갖추고 있음을 실현한 경전"이라며 "오늘 사부대중이 한 마음으로

<법화경>을 독경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맞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덕사 수좌 설정(사진 원쪽 위) 스님은 법어를 통해 "나 스스로 부처님이란 사실을 믿고 모든 이를 부처로 볼 때 온갖 사비와 갈등이 사라지고 진실한 언행을 하게 되면 모든 어려움이 저절로 극복될 것"이라고 법문했다. 설정 스님은 이어 "지명 법사께서 산문을 열은 곳(智明法師開門處)/빈 덕수산에 끝나지 않는 광장의 설법이여(德崇山空廣長舌)/종횡자재함을 그 누가 알 것인가(縱橫自在誰能識)/한길 신령스런 빛이 고금을 비추더라(靈光一道古今耀)"는 계송을 읊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격려법어를 통해 "선종 본찰에서 천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모여 <법화경>을 독송하는 이번 수승한 기회는 다시 없을 것"이라며 법회 관계자를 치하하고, "수행자든 세속인이든 편하게 살기 말고 정당한 노력으로 각자가 바라는 모든 일을 성취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웅전 건립 700주년 기념대법회에는 원로회의 부의장 민운 스님, 원로의원 동춘·명선·정무 스님과 교구부사주지협의회장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대회 봉행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화장 자유선진당 총재,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 1만여 대중이 참석했다.

글·사진=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불경학습의 새로운 시작!

보고 · 듣고 · 배우는 ~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 T-108 출시!

불법을 공부하시는 사부대중 -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불경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모음

- **염송경** · 반야심경 · 천수경 · 불설아미타경 · 금강반야바라밀경 · 원각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이산해연선사 발원문 · 불설야사여래본원경 · 화엄경 보현행원품 · 화엄경 약찬계 · 초발심자경문 · 무상계 · 의상조사 법성계 · 장엄염불 · 부모은중경 · 백팔대참회문 · 대불정능엄신주 · 지장보살본원경 · 천지팔양신주경 ·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 송주편 · 예경편 · 불공편 · 천도재 · 49재편

- **제품명** : 아이센스 T-108
- **제품구성** : - 아이센스 · 염송경집 1부 · 염송의범 1부
- 기기크기 : 9.5cm×6cm, 화면크기 : 5cm×4cm, 기기두께 : 0.8cm
- **제품의 특징(개발동기)**
의식을 공부하시는 불자들의 중점 학습방법은 책을 본다면지 테이프를 듣는 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었으나, 본 제품은 염송경과 염송의범을 듣고 화면으로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한글)과 의식까지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불경을 학습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 **제품사양**
컨텐츠 캡션 MP4 재생가능, 동영상 촬영, 내장형 카메라, 녹음기능, MP3, 멀티태스킹·백그라운드 음악, 내장 1G 플래시, 외장 2G, 320×240 TFT LCD 화면, FM 라디오 내장, 터치패드 사용, 게임기능, 전자수첩, 영·일·한자 전자사전
※영어·일어·중국어도 함께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하십시오. **도연아카데미**
문의 및 신청 (02)2666-0676~8
157-280 |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6 상희빌딩 301호
▷ 전국 대리점 모집 : 010-3785-9398
▷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구성
- 아이센스 T-108
염송경집 1부, 염송의범 1부